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21. 6. 19.(토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 구주통상과
담당과장	신성주 과장(044-203-5330) 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이수홍 사무관(044-203-5333) 박용균 사무관(044-203-5664)

한국, 체코 원전 수주전 본격 시동

- 문승욱 장관, 체코 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 대상 수주활동 전개 -

- 한수원 - 체코전력산업계연합(CPIA) 간 MOU 등 원전·산업협력 MOU 7건 체결 -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.18(금) 체코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**본격적인 원전 수주활동을 전개**함

< 체코 신규 원전사업 개요 >

- **(정부계획)** '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~2기 건설 계획, 우선 두코바니 1기를 '22년 중 발주(약 8조원 규모) 예정
- **(최근경과)** 체코 정부는 정식입찰은 연말 차기정부로 연기하나, 중·러는 배제하고 사전안보심사를 선착수한다고 발표('21.4월)
- **(추진일정)** ('21.6~11월)안보심사→('21.12월)정식입찰 참여기업 선정→('22)정식입찰 착수→('23)공급사 선정→('29)건설 착수→('36)두코바니 원전 상업운전

□ 바비쉬 총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**체코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**하고 **한국이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**함

○ 먼저, 문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해외원전 건설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, **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은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한 대표적 성공사례**임을 소개하고, **체코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**을 피력하였음

- 문 장관은 방사청 차장 근무 시절 체코의 무기산업을 접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**체코의 제조 기술력과 한국의 원전 전문성이 결합**된다면 체코 원전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음

- 또한, **바비쉬 총리와 하블리첵 장관의 한국 방문을 요청**하고 방문이 성사될 경우 본인이 직접 동행하여 **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**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

○ **바비쉬 총리**는 체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 의지에 **호의적인 반응**을 보였음

- 바비쉬 총리는 **한국이 체코 입장에서 안보 리스크가 없고**, 중국·러시아의 체코 원전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야당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, **한국의 입찰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언급**하였음

- 또한, 총리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**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**으로 하여금 **체코 원전기업 사절단**을 구성해 **한국을 방문**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음

○ 당초 30분간 예정되었던 총리와의 면담은 1시간이 넘게 **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**되었으며, 면담이 끝난 후 바비쉬 총리가 건물 밖까지 문 장관을 배웅하는 등 **최선의 배려를 보여줌**

□ 하블리첵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**우리기업의 원전사업 관리 능력과 경험,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사전준비 상황**을 상세히 소개함

○ 문 장관은 한국이 지금까지 총 27기(국내 26기, 해외 1기)의 원전을 건설하였고, 현재 7기(국내 4기, 해외 3기)의 추가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등 **풍부한 원전건설 경험**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

- 특히, 한국은 가장 최신의 원전인 UAE 원전을 건설한 국가이며, 총리 면담에서 논의되었던 **하블리첵 장관의 방한 계획에 더하여 UAE 원전도 같이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**한다고 제안함

- 장관 면담에 배석한 한수원 사장은 한국이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할 경우 체코기업이 한국기업과 함께 원전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**이미 160여개의 체코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**하였고, **원전기술 R&D 및 원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**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
○ 하블리첵 장관은 **체코기업의 원전사업 참여 비중**이 **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**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, 한국의 준비 상황을 높이 평가함

- 특히,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예정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, **지자체의 호응도 중요한 평가요소**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

- 이와 관련, **6.21(월) 사전안보심사 질의서**를 **한·미·프 3개국에 송부**할 예정인 바, 한국이 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함

□ 한편, 양국 장관은 원전협력 외에도 바이오, IoT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더하여 **수소, AI 등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**키로 함

○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**금년 하반기중 한-체코 산업협력 위원회 개최**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

□ 산업부 장관 면담 종료 이후, 양국의 기업·기관간 MOU 체결식을 진행하였으며, **한수원-체코전력산업계연합 협력 등 7건의 MOU가 체결**되었음

< 한-체 기업·기관간 협력 MOU >

	체결대상	분야
1	(韓)한수원-(체)전력산업계연합(CPIA)	원전 O&M, 엔지니어링, 연구개발
2	(韓)한수원-(체)Sigma社	원전 O&M, 엔지니어링, 연구개발
3	(韓)한전기술-(체)스코다社	공동설계, 기술이전
4	(韓)두산중-(체)I&C Energo社	MMIS 설치, 기술지원
5	(韓)대우건설-(체)Baucomex社	원전 건설
6	(韓)대우건설-(체)Hilti社	원전 건설
7	(韓)전자기술연구원-(체)프라하 공대	AI,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R&D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수홍 사무관(☎ 044-203-5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